

	CK- I 창조기반 첨단 해안도시를 위한 건설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전 공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성 명	강oo	학 번
파견대학	중국 동제대(건조제 참가)	파견기간	2018.06.04. ~ 2018.06.10		
(1) 파견학교 개요 (학교학교 위치와 연수관련 기본정보)					
<p>상해 동제대학교(Tongji University)는 1907년 설립된 중국에서 건축계열로는 가장 유명한 국가 교육부 직속의 중점대학이다.</p> <p>상해시 양포구 대학성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근처에는 전철역을 비롯하여 버스노선이 발달되어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p>					
(2) 연수지원을 위한 개인별 준비내용					
<p>이전에 다녀오신 선배들과 교수님의 조언에 따르면 동제대학교에 도착해서는 작품을 계획할 시간이 많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워크샵에 참가하기 전 계획을 거의 완성해야 했다. 공교롭게도 설계 마감 기간과 워크샵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워크샵에 참가하지 않는 학우들보다 일주일 정도 설계 마감을 앞당겨야 했다. 학기중 다른 과목과 워크샵에서 제출할 작품의 설계를 병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으나, 좋은 결과가 따라주어 뿌듯하다.</p>					
(3) 연수 소요 비용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					
<p>비행기값과 숙소비는 모두 CK사업단과 동제대학교 등에서 지원해주어 자비가 들어갈 일은 많이 없었다. 대신 기타 간식비와 식사 비용은 자비로 부담했다. 일주일 동안 쓴 돈을 총합해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p>					
(4) 연수중 일과 (학교생활, 수업, 활동 및 여가생활)					
<p>워크샵은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6박 7일로 진행되었다. 첫째날은 중국 입국 및 팀별 자유시간을 가졌고, 둘째날은 워크샵 참가팀 전원이 함께 이동하며 상해 현대 미술관과 건조제 스폰서 기업의 건물을 견학하고 강연을 들었다. 본격적인 팀별 작업은 셋째날부터 시작되었는데, 오전 8시에 일어나 준비 및 아침식사를 한 후 9시 정도부터 작업하여 오후 12시 건물 폐쇄 시간까지 많은 작업량을 소화해야 했다. 작품은 6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마감했으며 6시부터 8시까지의 심사 과정을 거친 뒤 다음날인 6월 10일 오전 9시에 3등상을 수상한 뒤 당일 오후 4시 반 정도에 한국에 도착하였다.</p>					
(5) 연수 소감 및 기타					
<p>이번 학기는 건축학과 학생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시기라 학기 초에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었다. 학과 내외의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에 참가했었는데 그중 가장 큰 프로젝트가 동제대학교 국제건조제였다. 낯선 공부와 많은 과제량, 바쁜 일과로 학기가 진행될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지만 고생만큼 좋은 결과로 되돌아와 기분이 좋다. 나보다도 다른 동기들이 많이 고생했다. 하지만 다들 팀의 분위기를 다운시키지 않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해주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이번 건조제는 매일 다니는 학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적과 학교의, 다양한 관점을 지닌 학생들과 소통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p>					

(6) 연수 내용	
	
우리가 작업했던 건축대학 건물이다.	1층에 학식을 제공하는 학생 식당이 있다.
	
첫째날 둘러보았던 푸동의 스카이라인.	건조제의 스폰서인 평유주 사옥을 견학했다.
	
지붕 고정 작업 중인 팀원들의 모습이다.	완성된 모델과 우리팀. 다들 께죄죄하지만 뿌듯한 모습이다.

창조기반 첨단 해안도시를 위한 건설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장 귀하